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 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

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among Urban Households

-Application of Systems Approach-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朱仁淑

부교수 李蓮淑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Lecturer: In-Sook Ju

Associate Prof.: Yon-Su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Debt was defined as all kinds of borrowings made by families including credit card deb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debt management on financial satisfaction. A model of 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 Deacon-Firebaugh's systems approach to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the variables comprising input, throughput and output were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es. Data were collected from 763 households' money managers residing in Seoul during Summer of 1995 and the statistical methods utilized included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It was responded about 82% of the households had been indebted, indicating the use of debt being a general way of living in this society. The results showed that financial satisfaction lowered with larger amount of monthly debt payment

and with their uncertainty regarding their capability to repay debt. The inputs which exerted direct effects on financial satisfaction were income, asset, financial expectations, and family life cycle. And consumption demand on debt and easiness in extending credit had strong indirect effects on financial satisfaction via the throughput variable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financial satisfaction was perceived difficulty in managing debt which was the instrumental output.

1. 서론

그동안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이용은 80년대 후반 이후 신용카드의 급속한 보급 및 금융권의 개방화·자유화의 진척과 함께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가계의 부채이용은 1993년 말 현재 151조 1,480억 원으로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38.2%로 증가하여 이 기간중의 자산 및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금액도 85년 이후 연평균 70% 이상의 비율로 급격히 성장하였다(장동구·함정호, 1994).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을 갖는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동안 가계는 높은 소득증대와 자산축적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꾸준히 가계의 신용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물자산 수익율, 그리고 이와 함께 형성된 사람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는 가계의 자금수요를 크게 증대시켜왔다. 한편으로 꾸준한 가계대출자금의 증가, 80년대 이후 금융권의 급속한 자유화 및 개방화의 진척, 그에 따른 제 2 금융권의 부상, 그리고 신용카드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은 가계에의 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시켰고 신용가용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결국 가계의 신용증대, 가계대출자금의 확대, 가계대출경로의 다양화 등은 가계의 신용가용성을 증대시켰고 가계부채사용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소비에 대한 기간간 선택이론에 의하면 부채는 일생에 걸쳐 가계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되며 그럼으로써 가계는 소비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Herendeen, 1974). 실제로 부채의 이용은 가계의 현재 구

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생활표준으로의 접근을 더 용이케 하는 동시에 생활주기상의 어느 단계에서 또는 가계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과 같은 특정 상황하의 경제적 곤궁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계소비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채사용으로 인하여 가계는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하게 되고 미래소득을 앞당겨 쓰게 된다. 결국 부채의 부담은 원금, 이자의 상환과 함께 가계 가용자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며(심영, 1993), 가계저축에도 제약을 주게 되고(Hayes, 1987), 지나친 부채부담은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Caplovitz, 1987). 신용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부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사회로의 급속한 확대는 개인 및 가계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채사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가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가계의 부채이용실태나 가계특성에 따른 부채이용의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가계부채의 이용이 궁극적으로 가계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채 대부분 기술적이고 실태조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계의 신용카드사용이 가계부채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파악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을 포함한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도 그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사용실태를 바탕으로 그러한 부채사용이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또는 가계복지 관련 정책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계의 부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조사한다.
- 2) 가계특성과 가계부채관리가 가계관리자의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부채의 정의

본 연구에서 가계부채란 가계가 담보 또는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판매회사, 제조회사 및 상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모든 대출이나 용자, 신용카드의 미지불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 그리고 사채업자나 계, 친지 등을 통하여 차입한 모든 종류의 가계 빚을 의미한다.

2. 가계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가계의 부채사용에 대한 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Fisher의 기간간 소비(Intertemporal Consumption)모델에 그 바탕을 둔다 (Herendeen, 1974; Bryant, 1990). 이 모델에서 가계의 소비는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가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가계의 자원은 순자산과 현재소득 그리고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부채액으로 구성되며 부채액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가계선호란 소비에 대한 가계의 시간선호성 (time preferences)을 의미한다. 중립적 시간선호를 가지는 가계는 저축도 부채사용도 하지 않으며 현재지향적 가계는 부채를 쓰게 되고 미래지향적 가계는 저축을 하게 된다.

이렇듯 가계는 소비에 대한 가계의 시간선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자원을 분배하는데 여기서 가계의 균형조건은 가계 예산제약선의 기울기 $(1+r)$, 즉 가

계의 부채사용에 대한 시장비용과 소비에 대한 가계의 시간선호한계율이 같은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의 효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의 효용보다 더 높으며 따라서 가계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간 만족극대화 모델안에서 가계의 소비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이 있다.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현재소득과 항상소득의 차이인 임시소득에 따라 현재의 차입 또는 저축행위가 이루어진다. 즉 임시소득이 항상소득을 초과하여 +이면 저축이 이루어지고 -이면 차입행위를 한다.

생애소득가설(Ando & Modigliani, 1963)에 의하면 소비자는 일생에 걸친 총소득, 즉 생애소득(lifetime income)에 근거하여 소비행위를 한다. 개인의 소비는 예상되는 총기대소득(생애소득)의 현재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나타나며 따라서 개인은 전 생애기간에 걸쳐 균등한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여기서 차입은 현재소득이 평균 생애소득의 현재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그룹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된다. 가계의 일생을 살펴볼 때 소득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초년기, 노년기에는 낮은 반면 중·장년기에는 높으므로 초년기에는 차입을, 그리고 중·장년기에는 초년기에 빌렸던 부채의 상환과 노년기에 대비한 저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는 일생에 걸쳐 소비수준을 안정화하여 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은 지금까지 가계의 제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사용이 가계의 만족극대화에 기여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을 현실로 적용하기에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잘못된 신용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Heck, 1980; Caplovitz, 1987). 현실적으로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서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미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론에서 가정하

는대로 신용시장이 가계의 부채사용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며 특히 부채사용으로 인한 현재 구매력의 확대에는 다양한 가계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할 관리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가계부채사용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제약이라 할 수 있다.

3.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체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기능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통합된 집단을 의미한다. 유기체에 있어서의 체계는 통제체계로서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적응적이다 (Kuhn & Beam, 1982). 이러한 통제체계는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실제 현상을 탐지하고(detector), 그와의 관계에서 선호성을 가지며(selector), 환경에 대해 목표지향적으로 반응하는 수행(effector)의 DSE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특성은 가족이라는 통제체계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가족의 자원사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가족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인 관리현상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가계의 자원관리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경제학적 접근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계를 볼 때 가계는 자원의 사용에 있어 항상 합리적이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행위를 선택한다. 따라서 가계가 그의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바로 가계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가정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체계적 접근은 가족체계에 투입요소로 들어가는 가계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하는 개별가계의 관리과정에 따라 가계의 효용(복지도)은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가계의 자원관리행동은 그것이 반드시 최상의 것은 아니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의해 가계의 복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여건의 자원과 요구를 가진 가계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달성하게 되는 다

중결과성의 개념이 설명된다. 따라서 가계자원관리의 체계적 접근에서는 가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관리과정의 규명이라는 실천적 과제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재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별가계의 부채관리행태를 조사하고, 그러한 부채관리가 가계의 재정적 복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계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의 모색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보다는 체계적인 관점이 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Heck과 Doughitt (1982), 그리고 Heck (1983)은 가족자원관리에 관한 여러 이론적 틀을 비교한 결과 가족의 가치나 목표 등과 같은 인적 요소를 관리하위체계에 대한 투입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에서 방법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을 지향하는 관리활동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의 검증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acon과 Firebaugh (1988)의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체계모델을 적용하여 가계부채관리와 관련된 가계의 여러 특성을 규명하며 이러한 부채요인과 가계의 재정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부채관리체계의 투입요소

체계모델에서 투입요소는 가계자원과 그러한 자원의 이용에 동기를 제공하는 가계의 요구로 구성된다. 가계부채관리체계에 있어 자원으로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외부환경적 특성이, 그리고 요구로는 가계의 부채사용요구가 설정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자산, 교육 등과 가계의 재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정생활주기 (Russel, 1975), 미래소득 (Fan 등, 1992), 소득안정성 (Sullivan & Worden, 1986), 주부취업 (장동구·합정

호, 1994)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적 여건으로는 가계대출자금의 정도(이명훈, 1994)와 대출거절경험, 소비자신용의 이차율, 신용사용과 관련을 갖는 세제상의 여건 등(Sullivan & Worden, 198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취득용이도를 부채사용에 대한 외부환경적 특성으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가계가 부채를 필요로 할 때 이를 조달받기가 얼마나 용이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부채취득용이도는 가계의 부채사용 의사결정에 보다 다양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적 특성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의 성격에 따라 소비용도와 투자용도로 구분된다(장동구·함정호, 1994). 소비용도란 현재의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용도란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용도를 위한 부채사용의 요구를 소비요구로, 투자용도를 위한 부채사용의 요구를 투자요구로 정의하였으며 한편으로 주택(자가)에 대한 가계의 부채사용요구, 즉 주택요구를 추가하였다. 가계에 있어 자가의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이는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요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과정요소

과정요소는 가계가 부채사용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를 나타낸다. 체계적 접근에 의하면 이러한 관리과정은 계획과 수행의 요소로 구성되며 계획은 다시 표준설정과 행동순서화, 그리고 수행은 계획의 실행과 행동의 점검 및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Danes & Hira, 1986; Lown & Ju, 1992)에서 가계부채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월부채상환적정도를 가계의 부채사용에 대한 표준설정으로 보았다. 표준설정이란 가계의 요구와 자원의 평가로부터 나오는 실제 행동을 위한 기준의 설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계가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월부채상환액은 가계의 실제 부채상환액에 대한 표준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에 대해 실제로 지출하는 가계의 월부채상환액은 가계부채사용의 실행요소가 된다. 월부채상환액은 가계부채사용의 양적인 면만을 나타내므로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부채사용관련 실행요소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를 통해 가장 요약적인 방법으로 가계의 부채사용실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부채사용 과정상에 있어 가계의 점검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점검을 포함하였다. 점검이란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가계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부채에 대해 가계의 상환능력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일은 가계 부채사용에 대한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며 부채사용 전반에 대한 피드백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정요소는 월부채상환적정도(표준설정)와 실제의 월부채상환액(실행),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점검(점검)이 되며, 이들 세 변인 사이에는 관리과정에 따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

3) 가계부채관리체계의 산출요소

가계부채의 사용결과 효용창출은 이미 이루어져 온 반면 가계는 그의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부채사용결과 파생되는 추가적인 관리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한 관리난이도 인지를 본 연구에서는 부채관리라는 특정 관리행동결과 파생되는 도구적 산출요소로 파악하였다(Heck, 1983). 이러한 도구적 산출요소는 가계로 하여금 보다 궁극적인 재정적 만족에 이르게 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가계부채관리의 최종 산출은 가계의 재정만족도가 된다. 가계관리 결과 파생되는 산출은 연구에 따르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solventy status)을 설정하기도 하였고(Mueller & Hira, 1984), 가계 순자산의 증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Titus, Fanslow & Hira, 1989). 그러나 부채상환능력은 부채 대 자산의 비율

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결과가 가계의 복지도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또 순자산의 증가역시 가계자원관리의 최종 산출이 될 수는 없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가계관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재정만족도를 가계부채관리를 통한 최종 산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정만족도는 Krannich 등(1988)과 Lown과 Ju(1992), 그리고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는 재정만족척도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델

Deacon과 Firebaugh(1988)의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의하면 산출인 가계의 만족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과정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가계의 관리행동은 가계구성원의 인지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산출인 가계의 만족도는 투입요소인 가계의 자원과 요구, 그리고 관리행동인 과정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가족자원관리체계의 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f(X, r, d)$$

$$X=g(r, d)$$

여기서 Q=산출; X=관리과정; r=자원; d=요구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이론적 모델에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들을 적용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가설적 인과모형이 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의 타당성을 위해 전공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계이며 표본은 건설부의 '1992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주거지역 지가를 근거로 다단계 집락 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추출되었다. 가계부채의 효용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예측되므로(Rusel, 1975) 표집은 분류된 지가지대별지역에서 가정생활주기별로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해당 가계의 부채 및 재정관리에 주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 또는 남편으로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항의 재구성 및 어휘에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조사는 1995년 6월 10일에서 7월 30일에 걸쳐 6명의 조사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총 960부가 배포되었는데 그 중 79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부실기재된 31부를 제외한 총 763부가 자료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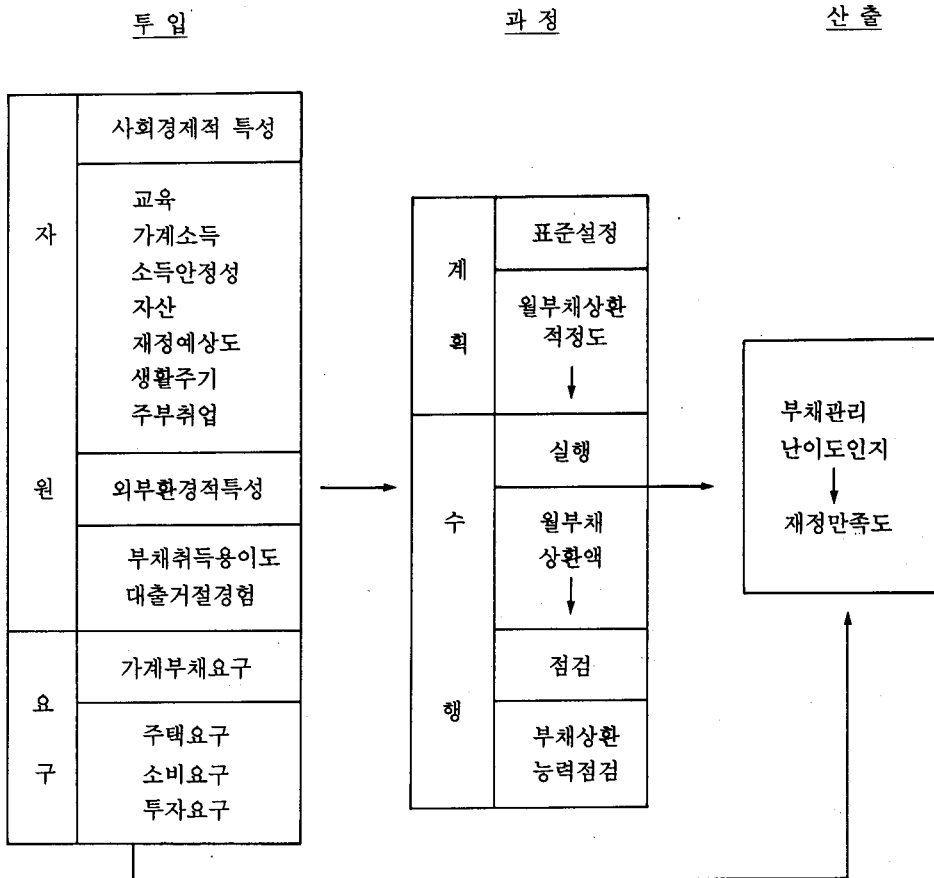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는 빈도분석(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수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계특성과 부채관리태도, 그리고 재정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계의 특성

조사대상가계는 19%(145명)가 남편이 그리고 81%(618명)는 주부가 질문에 응답하였다. 평균 가족원수는 4.3명이었고 월평균소득은 255만원이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0.77세이었고 33.8%가 4년제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가계 중 부채를 이용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의 82%인 618가계로 절대 다수의 가계가 부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볼 때 평균 부채보유액은 1791.35 만원이었고 부채이용가계만을



〈그림 1〉 가설적 인과모형

불 때는 2,144.98 만원이었다. 조사대상가계의 60%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49%가 신용카드를 통해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2.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과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과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과정요소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투입과 매개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세 개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였으며(부록 참고) 그 결과 심각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과정요소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월부채상환적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부채상환적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는 소득과 재정예상도의 가계특성 변수와 부채요구변수들이었으며 반면 외부환경적특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월부채상환적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 가계자원에 여유가 있을수록 부채지출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미래의 가계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예측할수록 부채상환적정도도 더 높게 나타나 역시 가계자원

〈표 1〉 변수의 측정

변 수	측 정
교육수준	학교 이하=1/ 고등학교=2/ 대학중퇴·2년제 대학=3/ 대학교=4/대학원 이상=5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소득
소득안정성	부부중 한 명이라도 자본가, 전문직, 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이면 소득 안정적(=1)/ 부부 모두가 그 외의 직업에 종사하면 소득 불안정적(=0)
자산	자가평가액 + 기타 자산
재정예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1/ 지금보다도 다소 어려워질 것이다=2/ 지금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3/ 지금보다는 다소 좋아질 것이다=4/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5
생활주기	미취학기=1/ 초등교육기=2/ 중등교육기=3/ 대학교육기이상=4
주부취업	취업=1/비취업=0
부채취득용이도	매우 어렵다=1/ 어려운 편이다=2/그저 그렇다=3/ 쉬운 편이다=4/ 매우 쉽다=5
대출거절경험	있다=1/ 없다=0
부채요구	주택요구(있다=1;없다=0) 자가의 구입·임차/ 소비요구(있다=1; 없다=0)자동차, 의료비,의류,생활비,가정기기,부채상환, 자녀결혼, 부모·형제자매관련, 선물, 휴직, 은퇴 투자요구(있다=1; 없다=0) 주식·증권, 부동산, 개인사업
월부채상환적정도 ¹	전혀 없어야 된다/ -30(만원)/ -60/ -90/ -120/ -150/ -180/ 180 이상
월부채상환액 ¹	전혀 없다/ -30(만원)/ -60/ -90/ -120/ -150/ -180/ 180 이상
부채상환능력점점	전혀 갚을 수 없다=1/ 어려움이 있다=2/ 잘 모르겠다=3/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4/ 충분히 갚을 수 있다=5
부채관리난이도인지	매우 쉽다=1/ 쉽다=2/ 그저 그렇다=3/ 어렵다=4/ 매우 어렵다=5
재정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1/ 불만족한다=2/ 그저 그렇다=3/ 만족한다=4/ 매우 만족한다=5

¹ 월부채상환적정도와 월부채상환액의 각 집단은 중간값을 이용하였음

상태가 향상되리라 예측할수록 부채에 대한 지출표준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주택이나 소비, 그리고 투자를 위한 부채요구가 있는 가계에서 월부채상환적정도는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부채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가계에서 부채이용의 가능성이 더 크며 그러므로써 월부채상환적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부채상환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변수들은 대출거절경험의 외부환경적 특성과 소비요구, 투자

요구의 부채요구변수, 그리고 월부채상환적정도의 매개변수이었다. 대출거절경험이 있는 가계가 더 많은 월부채상환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부채요구가 원활히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위한 부채요구를 가지고 있는 가계에서 실제로 부채상환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낸 반면 주택요구는 월부채상환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주택요구를 충족하는 부채는 대체로 장기저

〈표 2〉 가계부채관리체계의 과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월부채상환액		부채상환능력점검	
		b	β	b	β	b	β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	0.086	0.074	0.066	0.053	0.038	0.070
	가계소득	1.33E-03	0.174***	2.30E-04	0.028	1.95E-04	0.054
	소득안정성	-0.165	-0.061	0.195	0.067	0.022	0.018
	자산	-2.13E-07	-6.83E-03	7.80E-07	0.016	-2.19E-06	-0.114**
	재정예상도	0.146	0.098*	0.097	0.062	0.135	0.195***
	생활주기	-0.036	-0.029	-0.054	-0.041	0.050	0.086
	주부취업	0.069	0.026	0.107	0.038	5.76E-03	4.62E-03
외부환경적 특성	부채취득 용이도	-0.069	-0.052	-0.039	-0.028	0.160	0.160***
	대출거절 경험	-5.33E-03	-1.67E-03	0.383	0.113**	-0.015	-0.015
부채요구	주택요구	0.296	0.102*	0.128	0.041	0.049	0.035
	소비요구	0.498	0.168***	0.522	0.166***	0.084	0.060
	투자요구	0.535	0.204***	0.347	0.124***	-0.027	-0.022
매개변수	월부채상환 적정도			0.535	0.504***	-0.016	-0.034
	월부채상환액					-0.116	-0.262***
상수항		0.643		0.218		3.875	
F값		6.868***		30.649***		7.355***	
R ²		0.134		0.412		0.154	

* p<0.05 ** P<0.01 *** P<0.001

리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가계가 설정하는 월부채상환액에 대한 적정도가 높을수록 가계는 실제로 부채상환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는 Danes와 Hira(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β 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채상환적정도의 월부채상환액에 대한 설명력은 $\beta=0.504$ 로 나타나 가계의 부채지출액이라는 실제 부채사용에 대해 가계가 설정하는 표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채상환능력점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로는 자산, 재정예상도, 부채취득용이도, 그리고 월부채지출액이 포함되었다. 자산은 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쳐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확신있는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자산과 같은 자원이 부족한 가계가 미래의 가계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응답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자원이 가장 많은 집

단에서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보수적인 응답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산정도가 많을수록 가계부채는 증가하며 그러한 가계부채의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는 어느 정도 장기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미래의 가계상황이 낙관적이라 예상할수록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점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의 부채취득에 대해 쉽다고 느낄수록 부채상환능력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가계의 필요에 따라 부채를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계에서 부채상환능력점검의 점수는 낮아지고 있어 부채취득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미 쓴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한 집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월부채상환적정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월부채지출액이 많을수록 부채상환능력점검은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부채상환능력점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0.262$).

3. 가계부채관리체계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과 과정요소

부채관리체계의 산출에 대한 투입과 과정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이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도구적 산출요소인 부채관리난이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을 보면 부채취득용이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계가 필요한 만큼 부채를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부채를 관리하는데는 더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대출거절을 경험한 가계일수록 부채관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계의 주택요구와 소비요구가 존재할수록 부채관리난이도 인지는 더 높아지고 있었다. 과정변수를 통해 볼 때 가계의 월부채상환액이 많을수록 가계의 가용소득에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추가시키고 있었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점검 결과 상환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을수록 부채관리에

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다. 독립변수들의 부채관리난이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부채관리난이도 인지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변수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점검($\beta=-0.323$)이었다. 사용한 부채의 올바른 관리란 바로 부채의 성공적인 상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사용한 부채를 상환할 가계의 자원이 부족함을 느낄 때 그만큼 부채사용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할 수 있다.

가계특성과 가계부채요구로 구성된 투입요소변인들은 부채관리난이도 변량의 16.8%를 설명하였으며 부채관리 과정변인들은 부채관리난이도 인지의 25.6%를 설명하고 있어 부채관리난이도 인지라는 산출요소에 과정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들 과정요소를 투입요소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32.4%로 증가하였다.

최종산출요소인 재정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가계소득, 자산, 재정예상도, 생활주기 등의 투입요소와 월부채상환액, 부채상환능력점검의 과정요소, 그리고 도구적 산출요소인 부채관리난이도였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Titus 등, 1989)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가계의 미래 재정상황에 대해 낙관적일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생활주기는 재정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연령과 재정만족도가 서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월부채상환액이 많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부채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부채상환능력에 있어 보다 확신이 있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관리에 대한 난이도 인지가 적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투입요소와 과정요소, 그리고 도구적 산출요소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을 독립변수로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요소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는 재정만족도 변량의 18.4%를 설명하였으며 과정요소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는 1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들 투입과 과정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표 3〉 가계부채관리체계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과 과정 요소: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도구적 산출			최종 산출		
				부채관리난이도 인지			재정만족도		
		b	β	R ²	b	β	R ²		
투입요소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	-0.014	-0.018	0.168	-0.146	-0.042	0.184	
		가계소득	1.04E-04	0.021		3.33E-03	0.148***		
		소득안정성	-0.016	-8.8E-03		0.146	0.018		
		자산	-4.17E-07	-0.015		0.80E-05	0.148***		
		재정예상도	-0.010	-0.011		0.609	0.139***		
		생활주기	0.039	0.049		-0.516	-0.141***		
		주부취업	-0.108	-0.063		0.427	0.055		
	외부환경적 특성	부채취득 용이도	-0.180	-0.210***	0.168	0.276	0.070	0.184	
		대출거절 경험	0.163	0.079*		0.134	0.014		
		부채요구	주택요구 0.135 소비요구 0.146 투자요구 0.108	0.072* 0.076* 0.064		-0.343 -0.296 -0.057	-0.039 -0.034 -7.38E-03		
과정요소	월부채상환적정도	0.021	0.033	0.256	0.224	0.077	0.133		
	월부채상환액	0.100	0.167***		-0.306	-0.111*			
	부채상환능력점점	-0.442	-0.323***		0.972	0.153***			
도구적 산출요소	부채관리난이도 인지				-1.464***	-0.321***	0.218		
상수항		4.734			14.667				
F값		18.011***			18.094***				
R ²		0.324			0.350				

* p<0.05 ** P<0.01 *** P<0.001

분석한 결과 재정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8.2%로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도구적 산출변수인 부채관리난이도 인지를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35%로 크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만족도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외부환경적 특성과 같은 투입요소 뿐만이 아니라 부채관리의 과정요소나 도구적 산출 요소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조사해 보았을 때 부채관리난이도 인지($\beta=-0.321$)가 모든 변수

중에서 재정만족도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재정만족도에 대한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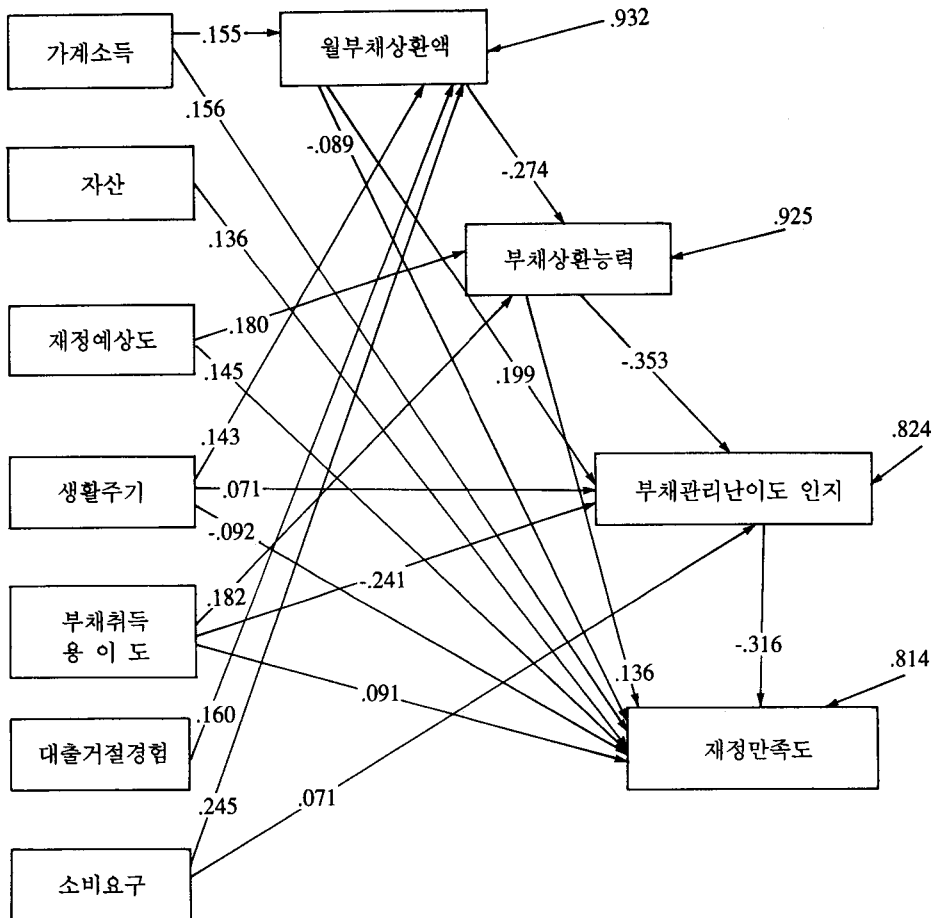
4. 재정만족도에 대한 투입과 과정요소의 인과 효과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된 가계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모형에는 재정만족도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만이 포함되었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델의 내생변수들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다시 회귀분석하여 경로계수를 조정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계수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인과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해 작용하는 간접 인과효과로 분해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재정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가계소득과 자산, 재정예상도, 생활주기, 부채취득용이도, 월부채상환액, 부채상환능력점검, 부채관리난이도 인지 등의 변수들이 재정만족도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채취득용이도와 소비요구의 투입변수가 과정변수와 도구적 산출변수를 통해 재정만족도에 강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월부채상환액과 부채상환능력점검도 매개변수를 통해 재정만



<그림 2> 가계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경로분석결과

〈표 4〉 재정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변 수	인 과 효 과						비인과 효 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 접 효 과			총간접 효 과	총인과 효 과		
		관리난이도	상환능력	상환액				
가계소득	0.156			-0.035	-0.035	0.121	0.104	0.225
자산	0.136					0.136	0.000	0.136
재정예상도	0.145		0.045		0.045	0.190	0.058	0.248
생활주기	-0.092	-0.022		-0.031	-0.053	-0.145	0.019	-0.126
주부취업						0.000	0.120	0.120
부채취득 용이도	0.091	0.076	0.045		0.121*	0.212	0.056	0.268
대출거절 경험				-0.036	-0.036	-0.036	-0.102	-0.138
소비요구		-0.023		-0.053	-0.076*	-0.076	-0.041	-0.117
월부채상환액	-0.089	-0.063	-0.068		-0.131*	-0.220	0.055	-0.165
상환능력점점	0.136	0.112			0.112*	0.248	0.094	0.342
부채관리난이도	-0.316					-0.316	-0.145	-0.461

*는 간접효과가 강함을 표시함

족도에 강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채 관리난이도는 재정만족도에 대해 -.316의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관리자가 인지하는 부채 관리상의 어려움이 클수록 재정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수 중 재정만족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계의 재정만족도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외부환경적 특성, 그리고 가계 부채요구 등과 같은 투입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채관리변인에 의해서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부채관리난이도 인지의 도구적 산출변수가 어느 변수보다도 가장 예측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만족도에 대한 부채관리의 중요

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부채이용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면서 가계부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가계부채관리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 대상가계의 대다수(82%)가 부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가계부채사용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가계의 부채사용요구와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외부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셋째, 월부채상환액에 대한 관리자의 표준설정은 가

계의 실제 월부채지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월부채상환액이 많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었다. 다섯째, 가계관리자의 재정만족도에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는 변수는 부채관리난이도 인지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자원관리 및 가계부채관리 그리고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가계의 대다수가 부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제 우리사회에 있어 가계부채사용은 보편적인 가계재정관리행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채관리가 가계에 있어 보다 중요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된 계층에만 가능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던 과거에 있어 은행대출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사회의 안정과 함께 금융환경 및 금융서비스의 개선이 진척되고 있는 현재 가계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채사용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부채관리의 중요성이 관련 교과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채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신용시장의 완전성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계의 부채관리행태는 부채취득용이도나 대출 거절경험 등의 외부 경제환경적 요소와 관계를 가지며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사용요구에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신용시장 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다 효율적인 신용시장이라 함은 가계의 부채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의 조달, 가계의 소득흐름을 고려한 다양한 부채상환방법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월부채상환액의 존재는 재정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이용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신용의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관리기술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가계관리자의 재정만족도에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는 변수는 부채관리의 난이도 인지였다. 이는 가계부채사용의 비용이 단순히 이자를 지불하는 것만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사용 의사 결정이나 부채상당시 금전적인 비용 외에 이러한 관리적 심리적 부담이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사용의 양적인 면을 통해 가계부채관리요소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용도나 차입처 또는 부채상환방법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계부채관리행태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가계부채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계부채의 관리난이도 인지는 재정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부채관리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위요소를 밝히는 일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계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채관리행태와 재정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복지는 가계관리자 한 사람에 의해서 대변될 수는 없다는 면에서 부채를 관리하지 않는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한 부채사용과 재정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계부채의 사용은 당연히 보다 많은 관리의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관리의 결과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된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사용이 가족 전체의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가계부채와 재정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2호, pp.195-207.

- 2) 심 영 (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4권 2호, pp.29-50.
- 3) 이명훈 (1994, 5). 가계소비의 동향과 유동성제약.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pp. 22-44.
- 4) 장동구 · 함정호 (1994, 10). 민간부채누적의 경제적 효과.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pp3-31.
- 5)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 6) Bryant,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
- 7) Caplovitz, D. (1987). The social benefits and social costs of consumer credi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119-123.
- 8) Danes S & Hira, T. (1986).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in the use of credi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 254-171.
- 9) Deacon, R. & Firebaugh, F.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가정관리학연구회 옮김.
- 10) Fan, X., Chang, Y, & Hanna, S. (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pp.125-133.
- 11) Friedman, M. (1957). A theory of consumer function. Washington D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12) Hayes, D. (1987). Incooperating credit in demand analysi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109-115.
- 13) Heck, R. (1980). Identifying insolvent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Winter, 1980, pp. 14-29.
- 14) Heck, R. (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pp.117-135.
- 15) Heck, R. & Douthitt, R. (1982). Research modelling implications of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pp.265-276.
- 16) Herendeen, J. (Winter, 1974).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 (2), pp.157-181.
- 17) Krannich, R., Riley, P. & Leffler, A. (1989). Perceived stress among nonmetropolitan Utah residents. Life Styles:Family and Economic Issues, 9(4), pp. 281-294.
- 18) Kuhn, A. & Beam D. (1982). Systems:concepts and theory. In The Logic of Organization, Sanfrancisco: Jossey Bass Publishers, pp.27-66.
- 19) Lown, M. & Ju, I. (1992). A model of credit use &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pp.105-121.
- 20) Mueller, M. & Hira T. (1984). Impact of selected money management practices on household solvency status.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pp.76-79.
- 21) Russel, T. (1975). Bank credit cards and consumer market. In The Economics of Bank Credit Cards, Praeger Publishers, Inc., pp.52-63.
- 22) Sullivan, C. & Worden, D. (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52.
- 23) Titus, P., Fanslow, A. & Hira, T.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pp.309-318.

〈부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교육																
2. 가계소득	.16***															
3. 소득안정성	.48***	.08*														
4. 자산	.11**	.41***	.07													
5. 재정예상도	.059	.11**	-.04	-.07												
6. 생활주기	-.26***	.10**	-.15**	.31***	-.19***											
7. 주부취업	.11**	.13**	.09*	-.08*	.18***	-.10										
8. 부채용이도	.15***	.16***	.14***	.12**	.12**	-.01	.02									
9. 대출거절	-.03	.02	-.12**	-.01	-.05	.03	-.01	-.35***								
10. 주택요구	.01	.01	.11**	-.01	-.01	-.00	.06	-.04	.02							
11. 소비요구	.03	.08*	.05	-.08*	-.09*	-.06	-.03	-.01	.08*	-.03						
12. 투자요구	-.08	.12**	-.17***	.15***	.05	.30***	-.02	-.02	.16***	-.11**	-.10**					
13. 상환과경도	.07	.19***	-.03	.07	.12**	.00	.08*	-.03	.08*	.07	.14**	.20***				
14. 월상환액	.014**	.15***	.07	.06	.11**	-.04	.09*	-.06	.18***	.07	.22***	.20***	.58***			
15. 상환능력	.05	.02	.06	-.08	.18***	-.00	.02	.20***	-.10**	.01	-.01	-.08*	-.16***	-.25***		
16. 관리난이도	-.07	-.00	.07*	.03	-.11**	.08*	-.07*	-.34***	.26***	.06	.12**	.15***	.22***	.31***	-.45***	
17. 재정민족도	.06	.23***	.07	.14**	.25***	-.13**	.12**	.27***	-.14**	-.06	-.12**	-.06	-.04	-.16***	.34***	-.46***

* P<.05 ** P<.01 *** P<.001